

신안 임자초 학생들이 “세계자연유산 가치 알려요”

갯벌 지킴이 기자단, 생태 관찰부터 홍보 슷품까지 완성
사전학습~현장취재~콘텐츠 제작...3~5학년 20명 대상

전남광주동해특별시 신안군 임자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안 갯벌 지킴이 기자단’으로 나서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임자초등학교는 9월 한 달간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신안갯벌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갯벌지킴이 기자단 학습’을 총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안교육지원청이 참여하고 (사)문화진흥협회 전남지부가 운영하는 신안갯벌 세계유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사전학습-현장취재-콘텐츠 제작’의 3단계로 진행됐다. 단순한 갯벌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취재한 내용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학습에서는 ‘갯벌 지킴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익혔다. 학생들은 블로그 글쓰기와 사진 꾸미기, 콘텐츠 등록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법을 배우고 직접 블로그를 제작하며 현장 취재를 준비했다.
지난 18일에는 신안군 자은면 둔장어촌마을 바닷가 갯벌에서 생태 탐구 활동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갯벌 지킴이 기자단은 18일 신안군 자은면 둔장어촌마을 바닷가 갯벌에서 생태 탐구 활동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갯벌 지킴이 기자단은 18일 신안군 자은면 둔장어촌마을 바닷가 갯벌에서 생태 탐구 활동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영하는 등 갯벌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갯벌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임을 확인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23일 사후활동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신안갯벌을 알리는 슷품 콘텐츠를 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한 갯벌의 모습과 생태적 가치를 글과 사진으로 정리하고, ‘신안갯벌을 왜 지켜야 하는지’,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고민해 짧은 영상에 담았다.
임자초 5학년 김나운 학생은 “내가 찍은 사진과 글이 블로그에 올라가고 직접 영상까지 만드니 진짜 갯벌 기자단이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신기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세계유산인 신안갯벌을 더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블로그와 영상으로 열심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자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유산인 신안갯벌의 가치를 교실 밖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주도적으로 기록하고 알리는 경험은 그 어떤 교육보다 값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미래세대의 환경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운 기자 joinus@gwangnam.co.kr



임자초등학교 학생들이 18일 신안군 자은면 둔장어촌마을 바닷가 갯벌에서 생태 탐구 활동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임자초등학교

한솔페이퍼텍, 6개 마을에 ‘농작업용 의자’ 200개 전달

‘추석맞이 대전면민 노래자랑’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 이어가

한솔페이퍼텍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담양군 대전면 남부·동부·한새·덕진·행정·성산마을 등 공장 인근 6개 마을에 농작업용 의자 총 200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상중 담양군의회원과 6개 마을 이장 및 주민, 한솔페이퍼텍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한 농작업용 의자는 허리벨트 형태로 착용해 이동과 착석이 편리한 제품으로, 농작물 수확과 제조작업 등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서야 하는 농작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담양군 대전면 남부·동부·한새·덕진·행정·성산마을 등 공장 인근 6개 마을에 농작업용 의자 총 200개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는 남부마을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 6개 마을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솔페이퍼텍은 ‘추석맞이 대전면민 노래자랑’에도 총 8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한솔페이퍼텍은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지원금 500만원을 후원하고, 약 300만원 상당의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를 행사 경품으로 지원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추석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행사에도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살피고 지원 대상과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농협무안군지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농업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마을 환경정화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이어갔다.

농협무안군지부,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활동 몽탄면 취약 농가서 ‘고주모’ 무안군지회와 영농폐기물 수거

농협무안군지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농업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마을 환경정화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이어갔다.
농협무안군지부(지부장 최평강)는 몽탄면(조합장 김기주)과 함께 무안군 NH농촌현장봉사단 사업의 일환으로 몽탄면 소재 농가를 찾아 노후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농협 임직원들은 고령·취약 농업인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다. 농가를 직접 찾아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농협무안군지부는 고향생각 주부모임(고주모) 무안군지회(회장 박영숙)와 무안읍 평음(교차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추석을 맞아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변과 교차로 주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최평강 지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살피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추석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담양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어르신에 추석 온정 광주·담양 마을회관 15곳 찾아 송편·과일·생필품 전달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정경남)이 추석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담양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효령타운은 최근 광주 북구 광북지역과 전남 담양지역 마을회관 15곳을 찾아 어르신 211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농지역 어르신들이 풍성한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광주와 담양을 잇는 지역돌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효령타운은 기존 광주지역을 넘어 담양까지 지역사회 협력 범위를 넓혔다. 현장에서 기관의 주요 복지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효령타운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활동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정경남 효령타운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고법·지법,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강화 수어·외국인·시각장애인 전문기관과 협약...사법 접근성 확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수어통역과 외국인 주민 지원,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권익옹호 분야 전문기관과 손잡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은 27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전남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지법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길상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과 김지에 수어통역지원센터장, 신경주 전남광주의국인주민지원센터장, 김형수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박찬동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

에 필요한 특화된 조력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수어통역과 외국인 주민 지원, 시각장애인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법원의 사법절차 전문성과 연계해 사법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법접근센터 활동 강화의 일환이다.
법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법률·채무·노무 분야 지원에 더해 장애인·노인·의사소통 등의 이유로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법원

청소년 과학 나눔 ‘신기한 과학체험’ 마무리 국립광주과학관·광주과학고 이틀간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광주과학고등학교와 이틀간 과학관 본관 2층에서 청소년 과학 나눔 활동 ‘신기한 과학체험’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역의 과학영재들이 주말 과학관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과학 원리를 직접 설명하고 체험을 돕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기획됐다.
이틀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핀홀카메라로 나만의 장면 담기, 전기와 자석이 만드는 멜로디!.. 범인을 찾아라!, 뉴턴켓 공기 대포 놀이 등 광주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높였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과학고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미래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진학과 진로에 관한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과학고 학

생들이 직접 쉽고 재미있게 과학 원리를 설명해 줘 아이가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 활동을 담당한 전시운영센터 이재영 연구원은 “광주과학고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말 과학관을 찾은 500여 명의 관람객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